영어어문교육 *제30권* 3호 2024 가을
https://doi.org/10.35828/etak.2024.30.3.109

교양영어수업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BL 수업사례 및 효과성 연구

임희주*
(단국대학교)
손희정**
(단국대학교)

Im, Heejoo, & Son, Heejung. (202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BL for English presentation in general English class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0*****(3), 109-127.**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using Problem-Based Learning (PBL) teaching methods for English presentations in general English classes. The study involved 85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 descriptiv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on pre- and post-achievement tests and a post-survey regarding PBL effectiveness. Qualitative responses from reflection journals on PBL activities were also analyzed. The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 and post-English achievement tests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that students improved through PBL activities. Second, the post-survey showed that students had high results in skills related to communication, self-direction, knowledge utilization, and problem-solving, but their English confidence was relatively low. Lastly, reflection journals revealed that students felt capable of participating in self-directed learning and exhibited more confidence in English presentations by developing the aforementioned skill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To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BL-based customized E curriculum and plan learning activities step-by-step to help learners adapt to tasks. Furthermore, to improve English confidence, it is recommended to design intermediate stages to provide feedback and opportunities to use English. Finally, it is appropriate for instructors to apply process-oriented evaluation methods to observe learner development.

[PBL/English presentation/group project/college students, 문제기반학습/영어 프레젠테이션/그룹프로젝트/대학생]

---

* 제1저자 ** 교신저자

Ⅰ. 서론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이하 PBL)은 1960년대 의과대학 의대생이 수업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수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적 생각, 지식, 기술, 과정을 정리한 학습법으로, 일반 학생들에게는 부족한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Savery & Duffy, 1995). PBL 기반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로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성과의 성취, 학습자의 기초역량 개발,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은 연구에 보고되어왔다. 또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중요한 학습목표이며 학습 수준에 대한 지표가 되므로, 협업과 자기주도학습에 의한 학습 경험이 학습에 대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Hung 외, 2003; Schmidt & Moust, 2000). 하지만, Barrows(1992)는 PBL 교수에서 비구조화된 문제, 즉 과업을 해결하면서 결과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학습자 수준이나 환경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결과의 질 등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비구조화된 문제가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PBL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 조리, 회계, 수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PBL과 관련된 연구들이(구정호, 양지연, 2017; 손영주, 송영아, 2012; 신승훈, 김찬우, 2019; 허난, 강옥기, 2010)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박수영, 조연순, 2012; 이승훈, 2015; 하오선, 정주원, 2021)가 수행되어 왔다. PBL 교수법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며 학습하는 과정을 지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모델로, 다양한 분야와 전공에서 여러 배경과 조건을 지닌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학습경험을 통해 학습역량과 해당 전공 · 분야의 능력 · 기술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므로 교수자는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 PBL 교수법을 적용한 연구분야로 수업 설계(유해준, 2016; 정유진, 2016), 모형 개발(김재희, 2017; 양윤희, 2008), 교육방안연구(손혜숙, 2016; 유효나, 2022), 수업 사례(김민화, 2021; 정명숙, 2023)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언어교육에서 말하기 영역이나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PBL 모형 적용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PBL 모형을 적용해본 이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영어교육에서 PBL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영어교육에서 PBL 수업모형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 중에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학 교양영어수업에서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BL 교수법의 적용사례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전공영어보다는 영어 수준이 다양한 교양영어에서 주로 취업을 위한 실용영어나 학문의 기초영어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해결기반 주제의 소재를 영어 발표로 다루기에는 학습자의 수업 이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생 수가 많은 교양영어의 여러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에게 영어발표를 위한 수업 진행과 피드백 제공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교양영어 교과목에 적합한 PBL 수업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프레젠테이션을 학습목표로 한 교양수업에서 PBL 교수법을 적용한 영어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영어성취도 변화와 효과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PBL 기반 수업

PBL은 미래역량인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의 함양을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법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선, 2018). PBL은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프로젝트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의 약어로, 두 수업방식 모두 학습자 중심의 배움과 적용의 일치를 근거로 영어교육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강인애, 2017; 김미경, 2023; 김영선, 2018, 정숙희, 2019).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프로젝트 과정의 문제 해결을 통해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Kilpatrick, 1918), 실제적이고 비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활동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이다(Blumenfeld 외, 1991).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을 위해 개별 및 공동 활동의 학습과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동하여 지식을 구성하여 내면화 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으로 구조주의에 기반한다(강인애, 2003; Barrows, 1996; Barrows & Tamblyn, 1980). 두 교수·학습법 모두 협동학습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발전시키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고 있으며,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러한 배움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Larmer, 2015). 본 연구에서도 PBL 기반 문제해결 과정의 단계별 수업 방식과 프로젝트 기반의 결과물 제시 및 발표 방법을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영어교육에 더욱 유용하고 적합한 수업방식으로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이 가능한 PB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PBL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과 협동학습이 강조되는 교육방식이고 교수자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PBL 기반의 수업에서 학습자는 학문의 지식 및 실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안을 결정함으로써 자기주도적으로 전략을 구축하고 학습경험을 쌓게 된다(김영선, 2018; 조연순, 2006; 하오선, 정주원, 2021; Barrows, 1996). 또한 문제해결의 결과물에 대해서

도 동료평가와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윤광진, 맹은경, 2021; Hillman, 2003).

더불어, PBL의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협동심을 포함하여 의사소통능력, 과업의 조직력,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디지털 역량 등 여러 기초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김영선, 2018; 윤광진, 맹은경, 2021; Hmelo-Silver, 2004). 학습자는 동료들과 공통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책임감과 리더십을 배우고 협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PBL 기반의 수업에서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김영선, 2018; Barrows, 1996; Hmelo-Silver, 2004). 교수자는 문제개발 과정에서 학습내용과 학습자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롭고 실제적인 주제의 문제를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동료들과의 협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학습자의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만족도, 성취감, 학습경험을 위해 결과물에 대한 첨삭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프로젝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안내자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정숙희, 2019).

PBL의 특징인 협동학습이 이끄는 중요한 효과는 사회성 발달이다. PBL의 문제해결을 위한 동료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학습자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김세련, 2021; 표시연, 2022). PBL의 또 다른 효과는 자기주도성으로, 과업의 역할 분담과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업 참여가 이끌어지므로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채영숙, 2017; 하오선, 정주원, 2021; Barrows, 1996; Hmelo-Silver, 2004). 이처럼 PBL 기반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해 얻게 된 시너지 효과들이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등의 정의적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김영선, 2018; 정숙희, 2019; Hmelo-Silver, 2004). 무엇보다 PBL의 주목할 만한 효과는 자기성찰을 통한 학습이다. 협업을 통해 학습자가 동료들과의 성과를 비교해보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반성하고(정숙희, 2019) 자신의 학습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자 자신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PBL 기반 영어 교육의 사례연구

영어교육에서도 21세기의 효과적인 미래역량 함양의 목표를 향해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과 맞춤교육을 위한 PBL 기반의 영어수업들이 더욱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영어교육에서는 학습목표에 따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목적

으로 PBL 기반의 수업모델을 제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어교과의 특성상, 교육범위가 넓고, 각 언어능력 및 기술에 따른 수업·학습유형과 교과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성과 실용성을 모두 고려하는 PBL 교수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PBL 기반 영어교육의 연구들은 수업유형과 학습도구에 따른 PBL 기반 영어수업을 통해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필수역량의 발달과 더불어 영어 능력의 향상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먼저 대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동기를 촉진하는 교양영어수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표시연(2022)은 말하기 수준이 초·중급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협업 도구를 활용한 PBL 기반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그 만족도와 효과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자는 PBL 기반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으로 수동적 태도를 가진 학습자들의 영어 사용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협업을 통해 능동적 수업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의 결과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도구의 활용이 영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도 보여주었다. 또한 김희진(2014)은 자기주도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능동적 학습 함양을 위한 사이버대학 교수학습설계를 위해 사이버대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직무영어과목에 e-PBL 교수학습모형을 접목하여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반 강의중심 수업보다 e-PBL 기반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비즈니스 직무영어 능력배양에 도움이 되었고 학습자들의 삶과 수업의 관련성을 발견하였으며, 강의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e-PBL 기반 직무영어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신장을 보고하였다.

PBL 기반의 ESP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 연구를 수행한 김혜경(2023)은 직업관련 공학 영어교육의 구조화를 목적으로 전자공학부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심층 개별 인터뷰, 학습자 성찰노트를 수집하여 학습자 인식과 경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PBL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 그리고 자기주도학습능력 순으로 향상을 보였고, 학생들의 의견 또한 이러한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의 체험을 보고하였다.

김미경(2023)의 연구에서도 6주동안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AI기반 학습도구를 활용한 PBL 중심의 교양영어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은 PBL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탐구와 영어 주제관련 내용지식의 구성 측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연구도구로 학생들에게 PBL 중심 교양영어의 학습경험에 관한 설문조사와 조별 보고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습자들이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만족도 영역, 지식구성, 성찰적 사고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나타냈고, PBL 기반의 학습을 통해 비판적 성찰적 사고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측면에서도 영어지식의 습득과 활용에서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PBL 기반 블렌디드 영어수업에서 학습자의 핵심역량 발달을 연구한 윤광진과 맹은경(2021)은 다양한 AI도구를 활용한 PBL 기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이 제2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영어성취도 테스트와 정서적 요인 및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PBL 기반 블렌디드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을 포함한 학업성취도와 정서적 요인(흥미, 참여, 동기부여, 자신감)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디지털리터러시 능력 등의 핵심역량도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육의 연구로는 박수영과 조연순(2012)이 실생활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보기 위해 PBL 적용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초등학생의 반응 및 참여태도를 관찰하여 PBL의 적용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PBL 적용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듣기 점수는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으며, 말하기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통계수치가 유의미함을 나타냄으로써 PBL 기반의 영어수업이 학생들의 참여태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웹기반 드라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과업활동과 학습자 배경으로 구성된 PBL 기반의 영어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능력의 발달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는데, 영어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이끈 연구도 있고(이향진, 2015; 전유상, 2016), 쓰기 능력의 발달을 보여준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윤선희; 2013; 이새라, 2015).

PBL 기반의 영어수업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흥미와 내재적 동기 등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 정숙희(2019)는 PBL을 적용한 교양영어수업 설계 및 운영사례를 소개하였고 대학생 20명과 교수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수업평가지, 성찰저널, 면담, 교수자의 수업운영일지를 수행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학습자들은 PBL 기반 수업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영어교과 핵심역량의 함양과 함께 흥미와 동기유발, 적극적인 수업 참여, 책임감과 협업능력 향상, 사회성 발달 등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비록 교수자들은 수업준비의 어려움과 부담을 보고하였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PBL 기반 교양영어수업에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내용의 구성과 내재화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수업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김영선(2018)의 연구는 중등영어교과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PBL의 구성요소기준을 고찰하고, PBL 기반 영어수업의 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실제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영어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PBL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력, 영어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한 PBL 기반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효과에 유의미함

을 보이진 않았으나, 영어의 학습전략과 상호작용 관련의 사회전략과 더불어 자기효능감, 동기, 흥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PBL 기반 수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인터넷 활용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으며(김미경, 2023; 이새라, 2015; 전유상, 2016),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해 교수자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양해순, 2008).

PBL 기반의 영어수업에서도 다음의 한계점이 고찰되어 왔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이 프로젝트의 학습법이나 학습도구의 사용법의 숙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동료들의 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과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업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과 과업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영어의 이해 및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들도 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습내용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상기시키며 개별적인 학습이 지속되도록 확인하고 장려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수업의 결과물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위해 동료들과 원만한 소통을 유지하고 과업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조별활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지속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PBL 기반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업 계획과 진행에 대한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PBL 기반의 수업의 여러 문제상황에서도 효과적인 PBL 기반의 영어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수업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과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정숙희, 2019). 무엇보다 PBL 기반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동료들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설계하고 개인 및 그룹 활동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PBL 기반 수업의 어려움과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미래 진로를 대비하는 대학생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기반의 협업의 기회가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필수역량을 갖춰야 하므로 PBL 기반의 영어수업에 대한 연구 사례와 결과들은 대학교육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4년 신입생으로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양 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참여대상은 남학생 29명(34.1%)과 여학생 56명(65.9%)으로 총 85명이며, 학생들의 소속대학은 외국어대학 23명(27.1%), 바이오융합대학 32명(37.6%) 그리고 예술대학 30명(35.3%)이다.

본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 전 온라인 영어레벨테스트를 통해 고급, 중급, 초급반으로 나누어져 배정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중급반에 배정된 학생들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자	29	34.1
	여자	56	65.9
단대별	외국어대학	23	27.1
	바이오융합대학	32	37.6
	예술대학	30	35.3
	전체	85	100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15주 동안 총 2회의 PBL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룹 프로젝트는 중간고사가 있는 8주의 전과 후에 실시되었다. 수업시간에 1주일에 약 15분정도 그룹별로 토론 시간을 주었고 그때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 교수자는 답변 및 피드백을 해주었다. 표 2에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해보면, 1주차에는 1단계로 4명씩 학생들이 원하는 학우들과 그룹을 만들도록 했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에서는 PBL 프로젝트의 절차와 과업을 소개한 후에 PBL1 프로젝트의 주제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교재(Keynote2)의 학습내용 중에서 연구자 2인이 합의하여 선정하였다. 1차 PBL 주제로는 “How can we identify and utilize sources of inspiration in our lives to address personal challenges and foster growth and development?” 그리고 2차 PBL 주제로는 “How can we promote ethical food choices to addres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imal welfare, and health concerns, and what strategies ca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mplement to shape the future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로 선정되었다. 3단계에서 학생들은 그룹별로 조장을 뽑고 주제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다. 다음 시간까지 주제에 대해서 각자 필요한 자료 분석을 해오도록 했고 자료를 취합하였다. 4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취합하고 정리한 자료에 대해 중간발표를 실시하였으며 교수자는 진행상황이나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다음 5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수정 및 보완하고 최종본을 만들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룹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최종보고서와 자기성찰일지를 제출하였다.

표 2
PBL 수업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세부사항
1단계	주제 소개 및 이해	· 교재내용에서 주제 선정
2단계	조편성 및 역할분배 브레이밍스톰/자료수집	· 주제에 관한 브레인스토밍 및 자료수집
3단계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초안작성	· 주제에 대한 자료 공유 및 중간보고서 초안작성 준비
4단계	중간발표 및 피드백	· 조장이 초안보고 및 교수자 피드백
5단계	그룹별 수정 및 보완	·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연습
6단계	그룹 발표 및 동료평가	· PBL또는 시각자료 활용 그룹별 5분발표(모든 학생 참여), 최종 보고서 제출 및 동료 평가 실시

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학업성취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과 사후 영어성취도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며 Cengage Learning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레벨테스트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PBL 단계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도와 과업 수행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성찰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PBL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표시연(2022) 연구의 설문내용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인 '능동적 참여 및 자기주도적학습능력, 지식활용 및 정교화, 문제해결능력, 협력의 사회기술 및 의사소통능력, 영어능력의 자신감'을 본 연구에서는 각각'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영어자신감'으로 표기하였다. 설문은 자기주도학습능력 5문항, 문제해결능력 4문항, 의사소통능력 4문항, 그리고 영어자신감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은'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85명 중 설문을 미완료한 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총 84명이 설문응답에 참여하였다. 성취도테스트와 설문결과는 SPSS 28버전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PBL의 영어성취도 및 효과성

1) 학업성취도

본 연구는 2주차에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각자의 핸드폰으로 사전테스트가 실시되었고 PBL1과 PBL2 프로젝트 활동이 끝난 13주차에 사후 영어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표 3과 같이, 참여자의 영어성취도에서 사전 테스트의 평균은 28.4점에서 사후 테스트 30.2점으로 1.74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PBL 기반 교수학습이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발표준비를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
영어성취도 변화

구분	사전		사후		평균차이		
(*N*)	*M*	*SD*	*M*	*SD*	*M*	*SD*	*t*
영어성취도(85)	28.4	5.48	30.2	5.89	-1.74	3.11	-5.169***

*$p < .05$, **$p < .01$, ***$p < .001$

2) PBL 효과성

PBL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들은 설문에 참여하였다. 영역별로는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영어자신감 영역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우선, 그림 1과 그림 2에서 영역별 평균과 방사형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M = 4.30)과 자기주도학습능력(M = 4.28) 영역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문제해결능력(M = 4.11)과 영어자신감(M = 3.83)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시연(2022) 연구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 그리고 영어자신감의 높은 평균 순서와는 다른 결과이다. 특히 영어자신감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단기간에 영어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룹 활동으로 조원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과업을 진행해는 과정에서 개인의 영어자신감을 높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그룹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역할과 업무를 배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영역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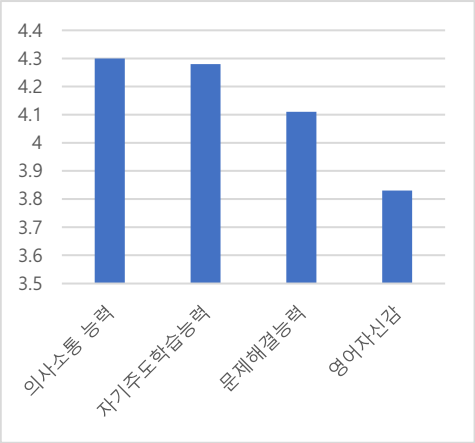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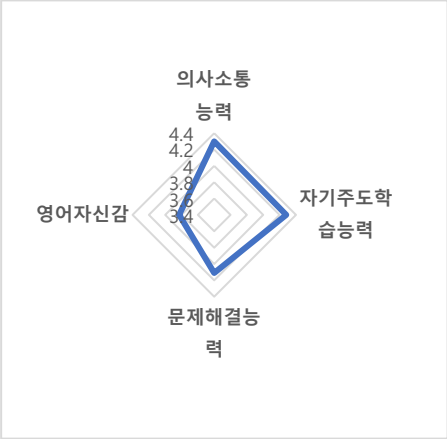


그림 2
영역별 평균의 방사형 그래프



영역별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문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 영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력, 책임감, 리더십을 배웠다.” 문항은 평균 4.48로 가장 높았고,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주어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항에서는 평균 4.43이며, 문제해결능력 영역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영어 지식과 새롭게 알게 된 지식 및 정보를 통합하여 프로젝트 산출물에 적용할 수 있었다.”의 문항은 평균 4.24, 그리고 영어자신감 영역에서는 “예전보다 영어 읽기에 다소 자신감이 향상된 것 같다.” 문항의 평균은 3.93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자신감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4.0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는 3문항 중 문제해결능력 영역의 “학습한 영어 지식을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에 활용할 수 있었다.” 문항이 평균 3.81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참여한 그룹과업의 주제가 교과목 교재내용의 일부분으로 다소 생소한 내용일 수 있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프로젝트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 많았기 때문에 학습한 영어 지식을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으로 낮은 평균을 보이는 문항은 영어자신감 영역의 “예전보다 영어 듣기에 다소 자신감이 향상된 것 같다.” 문항과 “예전보다 영어 쓰기에 다소 자신감이 향상된 것 같다.” 문항으로 평균 3.78와 3.66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발표자료를 만들고 개인별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4
PBL 설문조사 결과(N = 84)

영역	설문 문항	*M*	*SD*
의사소통 능력	조직력, 책임감, 리더십	4.48	.608
	의견 조율 방식	4.33	.628
	친밀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	4.30	.724
	협력의 기술	4.12	.718
자기주도 학습능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극적 참여	4.43	.625
	정보를 수집 기여	4.37	.635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 스스로 반성적 성찰	4.23	.627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제안	4.19	.752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생각	4.18	.604
문제해결 능력	기존 영어 지식과 새로운 지식 및 정보 통합 적용	4.24	.704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기 위한 접근방식 습득	4.22	.582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재구성	4.17	.691
	영어 지식을 실제 문제 활용	3.81	.702
영어자신감	영어 읽기 다소 자신감 향상	3.93	.708
	영어 말하기 다소 자신감 향상	3.93	.690
	영어 듣기 다소 자신감 향상	3.78	.807
	영어 쓰기 다소 자신감 향상	3.66	.765

2. PBL 프로젝트에 관한 학습자 경험

학생들은 그룹 프로젝트 활동이 끝나고 스스로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표 5에서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은 그룹 내에서의 신뢰감과 책임감, 의사소통, 협업, 문제해결, 자신감, 그리고 학습방법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학생들은 2회의 그룹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느꼈다고 했다. 혼자가 아니라 협동으로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어려운 과업의 해결을 함께 하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며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팀 프로젝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학습하고 서로 학습법을 공유하면서 자신감 또한 상승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외에 학생들은 불성실한 학생들과 그룹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과 역할분배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어서 힘들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표 5
PBL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발췌내용
신뢰감/ 책임감	-프로젝트를 통하여 혼자서 잘하면 끝나는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모여 하나가 되는 활동이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 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음.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맡은 부분이 전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깨달음.
의사소통	-그룹활동을 통해서 서로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됨.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내 팀플 의사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었기에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음. -서로 다른 가치관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거치며 사람과 소통하고 맞춰가는 느낌을 받음.
협업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룹활동을 통해 목표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협력심을 길렀으며 이를 통해 먼 미래에 발전한 협력심을 활용하여 사회에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협력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했고 팀원 간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고, 서로 도우며 목표를 달성하는 이번 팀플을 통해 협력이라는 것의 가치를 느끼게 됨.
문제해결	-이런 식으로 과제 수행 능력과 팀플레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니 과제가 나에게 귀찮고 스트레스만 주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 단계 더욱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라 느끼는 생각 전환의 시간이 됨. -그룹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음.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협력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됨.
자신감	-팀원들끼리 모여서 연습해보니까 하면 할 수록 실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발표를 피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됨. -반복에 반복을 더해 연습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나아지고 끝내 발표를 무사히 마친 나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 영어 발음이나, 발표 태도에 대한 발전이 나를 더 성장케 하는 그룹 프로젝트로 남음.
자가학습	-문법적으로는 the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명사가 복수로 쓰이는지, 어떤 접속사를 써야 문장이 자연스러울지를 대본을 쓰면서 학습함. -영어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문법적인 개념의 이해가 많이 낮다는 점을 깨닫고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문법적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들어도 스스로 영어로 글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교양수업에서 PBL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와 수업효과성을 살펴보고 그룹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점과 성찰한 점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85명의 대학교 신입생들이 참여하였고 사전과 사후 영어성취도 테스트와 효과성 설문 그리고 활동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학습자들의 PBL 프로젝트 활동 후의 성취도가 전의

성취도 보다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PBL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전과 사후 성취도 검사가 영어프레젠테이션 성취도 결과가 아닌 듣기, 문법, 읽기 영역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인 영어성적이 올랐다는 점은 학습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찰일지에서 확인한 결과 학생들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PBL 활동의 여러가지 면에서 그룹 활동이 편해지고 의사소통이 잘되었다고 언급했다. 둘째로, PBL 효과성에서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에서는 4.0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였지만 영어자신감은 이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BL 활동을 통해서 정의적 영역에서 향상을 보였다는 김미경(2023), 윤광진과 맹은경(202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흥미도, 성취감, 자신감 등의 정의적 영역은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영역일 수 있고, 본 연구의 PBL 프로젝트 활동이 15주동안 진행되었으므로 영어 쓰기,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높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PBL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학생들은 그룹에서의 신뢰감/책임감, 의사소통, 조원들과의 협업, 과업에 대한 문제해결, 영어프레젠테이션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의 핵심역량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 기능별 발달에 대한 학습자 중심과 맞춤화된 PBL 기반 교양영어 교수법 및 커리큘럼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프로젝트 설계과정에서 수업유형과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자의 기초영어능력과 실제적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위해 네 가지 기능별로 적용 가능한 PBL 기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협동학습을 통한 상호작용과 개인의 자기평가 및 성찰의 기회가 모두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채영숙, 2017),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유형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횟수와 개별 및 공동활동의 분량 및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개별활동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영어 수준과 특성에 맞는 자기성찰일지, 학습도구 활용일지, 혹은 기초영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학습, 글쓰기, 발화 녹음 등과 같은 맞춤형 활동을 설계하고, 공동활동의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과업의 횟수와 활동에 따라 역할 분담을 번갈아 작업하도록 안내하여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책임감과 리더쉽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다. 무엇보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과업 진행과정에서 동료들과 협업 및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며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체적인 수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의 많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PBL 기반의 영어교수·학습법 및 커리큘럼이 더욱 다각도로 개발되어 교수자의 수업계획과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어 말하기에 중요한 영어자신감 향상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맥락화가 가능한 실제적인 주제를 선택하고, 중간점검 단계를 설계하여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초·중급의 영어 학습자는 영어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영어학습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낮은 영어자신감과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다. 한 학기 동안 혹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단기간 동안 영어 능력과 자신감을 현저히 높이고 수업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강의중심 수업과 달리 학습자 중심의 PBL 기반 수업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어자료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습과정의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받지 못하면 의미 있는 학습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가 낮아지며,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자신감의 향상을 위해 교수자는 문제제시 및 주제선정 단계에서 학습을 자극하고 맥락화가 가능한 주제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실제 경험에 영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외국어인 영어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에 집중하기 보다 영어사용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하여 수업 초기부터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BL의 단계별 절차에 중간 점검 단계를 계획하여 학습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업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가 영어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감이 낮은 학습자에게 영어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발음과 억양, 바디 랭귀지와 제스처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관심과 격려를 표현한다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로 학습자들의 영어자신감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PBL 기반 영어수업에 적용 가능한 과정중심의 평가 방식의 시행이 필요하다. 언어능력 및 기술의 성취도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영역별 수준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PBL 기반 영어수업에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자의 성장과 핵심역량 발달의 정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과정중심의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을 포함하는 수행평가의 적용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은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과 영어학습에 대한 내적동기 유발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으며, PBL 기반의 영어수업에서 네 기능의 발달과 함께 핵심역량의 발달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 보다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정 중심의 평가방식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참여자가 모두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학년 학생들의 PBL 프로젝트 활동 양상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영어프레젠테이션을 위한 PBL 학습법으로 일반화시키기 힘들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년과 연령대로 연구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기 초에 배정된 중급수준의 학급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고 초급수준의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몇몇 그룹 활동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에는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PB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수준별 PBL 프로젝트 활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인애. (2003).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강인애. (2024. 6. 2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PBL의 재조명. *서울교육, 229*(4). https://webzine-serii.re.kr/2017winter/

구정호, 양지연. (2017). 프로젝트 중심 학습 (PBL)에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회계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Korea Business Review, 21*(4), 119-140. https://doi.org/10.17287/kbr.2017.21.4.119

김미경. (2023). 인공지능기술 학습도구와 PBL중심 교양영어 교과목 개발 및 적용. *교양교육연구, 17*(2), 169-183. https://doi.org/10.46392/kjge.2023.17.2.169

김민화. (2021).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아동문학교육 수업 사례 연구.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9*(1), 51-64. https://doi.org/10.22716/sckt.2021.9.1.006

김세련. (2021). 기초일본어 전공 교과목의 PBL(Project-Based Learning) 적용 사례연구. *일어일문학, 90*(10), 159-179. https://doi.org/10.18631/jalali.2021.90.010

김영선. (2018). *영어과 PBL을 위한 구성요소기준과 학습모형 개발*[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김은정. (2005). *웹기반 드라마 프로젝트 영어학습모형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방안연구: 캠코더 사용을 중심으로*[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재희. (2017). *플립러닝을 활용한 한국어 글쓰기교수·학습 설계 모형 개발 연구-문제중심학습(PBL)을 기반으로*[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혜경. (2023). PBL 기반 공학영어 ESP 교수·학습 모형 연구. *영어어문교육, 29*(3), 65-89. https://doi.org/10.35828/etak.2023.29.3.65

김희진. (2014).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사이버대학 교수학습설계: e-PBL 기반 '직무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28*(2), 411-432.

박수영, 조연순. (2012). 초등영어에서 실생활 듣기와 말하기 능력향상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의 적용 효과. *교과교육학연구*, *16*(3), 689-708.

손영주, 송영아. (2012).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에 대한 PBL과 S-PBL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1), 43-52.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43

손혜숙. (2016).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기획서 쓰기와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문화와융합, 38*(6), 321-351.

신승훈, 김찬우. (2019). 조리전공 대학생의 요리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문제중심학습(PBL) 적용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598-608. https://doi.org/10.5392/JKCA.2019.19.08.598

양윤희. (2008). *'PBL의 평가'를 활용한 '수행평가' 모형 개발*[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양해순. (2008). 인터넷을 활용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의 성과에 관한 연구: 관광 영어 사례분석. *비즈니스연구, 9*(5), 189-208.

유해준. (201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교양 수업 연구: PBL을 활용한 토론 수업 설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pp. 146-157). 서강대학교.

유효나. (2022).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윤광진, 맹은경. (2021). AI를 활용한 PBL 기반 블렌디드 수업이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22*(3), 45-56. https://doi.org/10.18095/meeso.2021.22.3.45

윤선희. (2013). *팀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영어 쓰기 수업 모형 연구*[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이새라. (2015). *영어 블로그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쓰기와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이승훈. (2015). *PBL 환경에서 재미와 학습몰입, 팀 학습활동, 학습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중심으로*[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이향진. (2015). *창의 연극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중학교 3학년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창의성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전유상. (2016). *랩 기반 스토리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이 초등학생의 영어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정명숙. (2023). '말하는 중국어 작문' 수업 사례 분석. *중국언어연구, 109,* 255-284. https://doi.org/10.38068/KJCL.109.9

정숙희. (2019). 프로젝트 기반 교양영어 수업운영사례. *교육문화연구, 25*(5), 325-347. https://doi.org/10.24159/joec.2019.25.5.325

정유진. (2016). *PBL을 적용한 초등학생 한국무용 수업 설계*[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조연순. (2006).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채영숙. (2017).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게임 제작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사례 연구. *영상문화 콘텐츠연구, 13*, 55-69. https://doi.org/10.24174/jicc.2017.12.13.55

표시연. (2022).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PBL 수업의 효과: 대학 교양영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5*(4), 237-257. https://doi.org/10.15702/mall.2022.25.4.237

하오선, 정주원. (2021). PBL(문제중심학습)이 대학생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29*(5), 73-93. https://doi.org/10.18230/tjye.2021.29.5.73

허난, 강옥기. (2010). 수학과 문제중심학습(PBL)을 위한 문제분석기준 개발과 학습모형 연구. *수학교육학연구, 20*(3), 255-274.

Barrows, H. S. (1992). *The tutorial proce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arrows, H. S. (1996). Problem-based learning in medicine and beyond: A brief overview.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1996*(68), 3-12.

Barrows, H. S., & Tamblyn, R. M. (1980). *Problem-based learning: An approach to medical educa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Blumenfeld, P., Soloway, E., Marx, R., Krajcik, J., Guzdial, M., & Palincsar, A. (1991). Motivating project-based learning: Sustaining the doing, supporting the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369-398.

Hillman, W. (2003). Learning how to learn: Problem based learning. *Australi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8*(2), 1-20.

Hmelo-Silver, C. E. (2004). Problem-based learning: What and how do students lear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3), 235-266.

Hung, W., Bailey, J. H., & Jonassen, D. H. (2003). Exploring the tensions of problem-based learning: Insights from research.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2003*(95), 13-23.

Kilpatrick, W. H. (1918). The project method. *Teachers College Record*, *19*(4), 319-335.

Larmer, J. (2015, July 13). Project-based learning vs. Problem-based learning vs. X-BL. *Edutopia*. https://www.edutopia.org/blog/pbl-vs-pbl-vs-xbl-john-larmer.

Savery, J. R., & Duffy, T. M. (1995). Problem based learning: An instructional model and its constructivist framework. *Educational Technology, 35*(5), 31-37.

Schmidt, H. G., & Moust, J. (2000). Towards a taxonomy of problems used in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a. *Journal on Excellence in College Teaching, 11*(2/3), 57–7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임희주(교수)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자유교양대학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Email: heejooim@dankook.ac.kr

손희정(교수)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자유교양대학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Email: 12181161@dankook.ac.kr

Received: July 8, 2024
Reviewed: August 27,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September 24, 2024